



회원사동향

現代重, 중전기 中서 직접 생산

현대중공업(대표 최길선)이 중국에서 배전반, GIS(가스절연 개폐장치) 등 중전기 제품을 생산한다. 현대의 이번 중국진출은 단독진출이 아닌 중국업체와 협업을 통해 합자회사를 설립,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최길선 현대중공업 사장은 지난 27일 중국 장쑤성(江蘇省) 양중시의 강소남자통화전기 집단유한공사(이하 강소남자사) 사무실에서 강소남자사의 왕 바오핑(王寶平) 회장 등 양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강소현대남자전기유한공사(이하 강소현대사) 합자 서명식을 가졌다.

장쑤성 양중시 약 6만평 부지에 세워질 강소현대사에는 현대중공업과 강소남자사가 65 : 35 비율로 총 6천만 달러를 투자한다. 강소현대사는 공장이 준공되는 오는 2004년 4월부터 배전반, GIS, 중저압 차단기 등을 생산한다.

현대중공업은 앞으로 변압기, 전력전자제품 및 철도차량용 전장품 등 생산품목을 확대, 강소현대사를 제2의 생산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현대중공업의 합자 파트너인 강소남자통화전기집단유한공사는 평균 매출액이 약 5천만 달러 규모의 중국 배전반업계 20위 내의 업체다.

하지만 모기업인 중국화전발전공사 산하 남자그룹은 중국에 전국적인 영업망을 보유한 대기업으로 앞으로 현대가 이를 적극 활용할 경우 중국시장을 개척하는 데 수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중공업은 강소현대사를 중국 내 판매는 물론 동·서남아시아 및 중동지역의 수출 전진기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강소현대사는 제품 생산 첫 해인 2004년 매출목표를 약 4천만 달러로 잡고 있다. 매년 60~80%의 성장률을 기록, 2008년에는 약 3억 달러의 매출을 올린다는 계획이다.

LG산전, 전기研 기술교류회

LG산전(대표 김정만)은 지난 18일 경남 창원에 있는 본원에서 한국전기연구원(원장 권영한)과

산·연 협력강화와 교류활성화를 위한 기술교류회를 열었다.

양 기관이 갖고 있는 기술정보를 교류하고 전기기술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권영한 원장과 김정만 사장을 비롯해 주요 간부들이 대거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특히 권영한 원장과 김정만 사장은 전기연구원의 연구현장과 시설 등을 견학하면서 전력기술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現代重, 대한전기학회 올해의 기술상 수상

현대중공업(대표 최길선)의 발전소용 국산 첨단 감시제어장치 및 디지털보호장치가 국내 전기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전기학회로부터 올해의 기술상으로 선정되어 수상하였다. 대한전기학회는 매년 국내 전기기술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를 선정하여 올해의 기술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학계, 연구소, 기업체 대표로 구성된 전력기술부문 학술위원회에서 수상자를 선정한다. 이번에 올해의 기술상을 수상한 현대중공업의 '전력감시시스템(HIPMS-plus)' 과 '디지털보호계전기(HIMAP)' 는 첨단 신기술을 적용한 순수 국산 제품으로 국내 발전소 및 선박에 납품되어 기술 발전 및 수입 대체 효과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디지털 보호계전기 HIMAP은 처음 제품을 출시한 1997년에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 업계 최초로 장영실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현재 버전4의 최신 제품까지 출시되었다. 또한 국내 업체로는 유일하게 한국전력에 납품하였으며, 국내 각 기간산업 설비에 납품되어 그 성능을 인정받았다.

HIMAP은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채택하여 각종 보호계전기 기능뿐만 아니라, 고해상도의 플트레코딩(사고내용저장) 기능도 가능하며, 4 ~ 20mA의 아날로그 입력모듈을 장착하여 활용범위를 넓혔다. 그리고 사고시 저장된 사고 데이터 이용하여 사고 원인을 신속하게 분석할 수 있으며 사이클당 36 샘플링의 해상도로 사고 파형을 5초(300사이클)동안 저장할 수 있는 사고파형 저장기능도 갖추고 있다. 또한 사고시 사고상, 사고크기, 사고 년, 월, 일, 시, 사고시 동작계전기 등 100개 까지 저장할 수 있는 사고 이벤트 저장 기능이 있으며, 사고 데이터는 비 휘발성 메모리(Flash Memory)에 저장되기 때문에 정전이 되더라도 데이터가 기록 보존 될 수 있다.

케이디파워, 일체형배전반 특허 방어

(주)케이디파워(대표 박기주)가 일체형수배전반에 대한 특허기술 방어에 본격적으로 나섬에 따라

수배전반 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케이디파워 박기주 사장은 “일체형수배전반에 대한 특허를 무단으로 모방해 판매하고 있는 5개사에 특허침해 사과와 앞으로 자사의 기술기준을 준수할 것을 약속받는 공문을 발송할 것”이며 또 “이달 말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특허침해사실 자진신고를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사장은 또 “특허 침해업체의 대응에 따라 ‘제조가처분신청’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케이디파워가 수배전반 시장의 새로운 범용제품으로 부상하고 있는 일체형수배전반에 대해 앞으로 특허 무단침해를 철저히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수배전반 업계가 특허분쟁에 휘말릴 전망이다. 일체형수배전반은 지난 2001년 케이디파워가 특허를 등록, 독점적인 기술력을 확보한 제품인 데도 불구하고, 여타 수배전반 업체가 무단으로 모방 사용하고 있다는 게 케이디파워의 주장이다.

반면 수배전반 업체들은 “일체형수배전반은 수배전반의 결합방식을 바꾼 것에 불과해 신형 기술이 아니므로 누구나 생산할 수 있는 범용 기술이며 90년대부터 생산해 온 제품”이라며 “이번 특허 분쟁은 케이디파워가 일체형수배전반 시장을 독차지하겠다는 저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일체형수배전반은 변압기, 차단기, 개폐기, 계전기 등 수배전용 전력기기를 하나의 철재 외함에 넣어 결합한 콤팩트형 수전시스템이다. 현재 연간 7천억~8천억원 규모의 수배전반시장에서 2천500억원 규모의 시장을 점하고 있으며, 앞으로 3~4년 내에 기존 분리형수배전반을 완전 대체할 것으로 기대된다.

선도전기 영업실적 ‘호조’

선도전기(대표 김방규)가 최근 들어 영업실적이 크게 호전되고 있다.

중전기분야 중견기업인 선도전기는 올해 들어 9월 말까지의 영업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총 335억5천100만원의 매출을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2%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당기순이익은 33억7천600만원을 달성해 작년 동기 대비 92.5%나 급증했다. 이 기간 영업이익과 경상이익도 각각 54.3%, 141%나 증가했다.

3분기 영업실적은 매출액이 79억1천800만원, 경상이익이 3억6천700만원을 각각 기록해 작년 동기 대비 각각 25.3%, 162.3% 증가했다. 반면 3분기 영업이익은 4억4천900만원에 머물러 12.7% 감소했다. 3분기 당기순이익은 7천만원의 순수실을 기록했지만 작년 동기의 3억5천400만원 순수실에 비해서는 80%나 늘어났다.

이와 관련 선도전기는 “금년 총매출 목표액 400억원은 무난히 달성할 것”이며 “4분기와 내년에는

MEMBERSHIP

국내의 경기가 여전히 불투명함에 따라 영업실적 상승폭이 다소 좁혀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진전기, 내년부터 DPF 양산

일진전기(대표 홍순갑)가 경유 운행차량용 매연저감장치(DPF) 양산시스템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 일진전기는 지난 7일 DPF분야 세계적인 전문엔지니어링회사인 독일 FEV사와 DPF 성능보증 및 양산을 위한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독일 FEV가 일진전기에게 DPF에 대한 성능보증은 물론 양산차량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전자제어장치(ECU)와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하고 향후 관련기술 일체를 이전한다는 내용이다.

일진전기는 이를 통해 내년 10월부터 DPF 양산에 돌입할 계획이다. DPF 시장은 국내 수도권에만 향후 10년간 1조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일진전기 신규개발팀 김종석 상무는 "이번 계약으로 일진전기는 2005년부터 경유 운행차량에 적용 가능한 DPF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진전기는 2005년 상용화를 대비해 본격 양산설비를 구축해 향후 연간 1천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계획이다.

FEV는 DPF를 유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프랑스 푸조자동차에 DPF기술을 제공한 회사로 이 분야 세계 최고 기술을 갖고 있다. 푸조자동차의 DPF는 이미 출고된 차량에는 당장 적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LG산전 토털 솔루션업체로

30년 전통의 전형적인 산전기기 제조업체인 LG산전(대표 김정만)이 최근들어 국내외 '자동화시스템 시장'에 적극 나서면서 이른바 토털 솔루션 업체로 거듭나고 있다.

LG산전은 지난 6년간 90억원을 투입, 지난 5월 '자동열차제어시스템(ATP/ATC)'의 국산화에 성공했다. 사내 연구인력도 해당 프로젝트에 대거 전진 배치시키고 있다.

동남아 등 해외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으며 치열한 수주경쟁을 펼치던 선진업체들은 국내시장 공략을 위해 제휴손길을 뻗치고 있다.

◇ 이유있는 변신=LG산전은 IMF 이후 엘리베이터, 로봇, 자판기 등 굵직한 사업부문을 정리해 사업의 슬림화를 이뤘다. 이를 바탕으로 이른바 'T-솔루션', 즉 단품기기와 시스템이 접목된 토털 솔루션을 기치로 내걸고 '자동화시스템' 사업을 경쟁력의 근간으로 내세우고 있다.

철도시스템 자동화에서처럼 수주 성공시 배전반, 변압기, 전력감시시스템 등의 설비기기 수요를 재창출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이룬다. 이 회사 주력분야 중 하나인 전력사업 등으로 연계되는 '후방효과'가 크다.

◇ 해외서 먼저 인정=LG산전은 이미 지난 90년 대만에 100만달러 규모의 자동폐색장치 구축 프로젝트를 성사시켰다. 이 회사 자동화시스템 기술은 국내보다 오히려 세계시장에서 더욱 정평이 나왔다. 현재 LG산전이 입찰에 참여하고 있거나 사업참가를 추진중인 동남아 등 해외 철도시스템 프로젝트의 규모는 줄잡아 1조원. 이 중 이 회사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프로젝트는 500억원 규모의 방글라데시 신호설비 사업과 300억원 규모의 태국철도청 2·3단계 신호통신사업이다.

특히 지난 8월 입찰에 참가, 이르면 올 연말께 최종계약자 선정발표가 있는 방글라데시 신호설비 프로젝트에서는 현재 알스톰, 지멘스, 알카텔, 봄바르디에 등 유럽계 경쟁업체들과 치열한 수주전을 펼치고 있다.

◇ 국내시장, 차별화 전략으로 승부=산업자동화업체들이 주도하는 해외시장과 달리 국내시장은 SI업체들과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한다. LG산전은 자체 기술력과 설비기기 제조 노하우 등 차별화를 내세우고 있다. 김동호 LG산전 자동화시스템사업부장(상무)은 "제조기반이 없는 SI업체의 경우 수주후에 관련 장비나 기기를 국내외 협력업체에 전적으로 의존해 조달받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토털솔루션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시장에서 올들어서만 5건의 자동화시스템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특히 이번 1500억원 규모의 철도청 차상신호시스템(ATP) 사업 참여를 위해 최근 알스톰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내수시장 공략을 위한 선진업체와의 기술협력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김 상무는 "해외 자동화시스템 수주시장은 해당 설비기기 제조능력이 없는 사업자의 응찰 자체를 불허할 정도"라며 "SI업체들에 의한 자동화사업 주도는 관련산업의 기술적 종속을 야기해 핵심기술의 국산화를 더디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KD파워, 중국 판매법인 설립

전력 벤처기업 KD파워(대표 박기주)는 지난 6일 2003 서울국제종합기기전 전시장에서 중국 위하이 화통개관설비유한공사와 지능형 수배전반 중국내 판매를 위한 법인설립 양해각서(MOU) 조인식을 가졌다.

이날 조인식에는 박기주 사장과 중국 위하이화통개관설비(威海華通開關設備)유한공사의 이지주 사장이 참석했다. 양사는 50대 50의 투자로 올해 안에 합작사를 설립, 내년부터 중국시장에 지능

형 수배전반을 판매할 계획이다.

이지주 사장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중국의 전력설비 공사가 급격히 증가해 전력기기의 수요가 급격히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능형 수배전반은 성능, 디자인, 모든 면에서 뛰어나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양사는 앞으로 3개월 안에 합작회사 설립에 대한 세부사항을 결정할 계획이다.

중국 산동성에 위치한 위하이화통개관설비유한공사는 스위치 기어를 생산하는 업체로 올초 KD과 위의 지능형 수배전 기술이전계약을 맺은 기업이다. 지난 93년 설립됐으며, 자본금 128만 달러로 종업원이 200명을 달하는 중견기업이다.

대원전선, 한전과 대규모 공급계약

대원전선(대표 서명환)은 한국전력과 50억3900만원 규모의 공급계약을 맺었다고 지난 27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계약기간은 11월6일부터 내년 11월5일까지다.

동우전기 ‘엔지니어링플라스틱’개발 착수

동우전기공업(대표 김연수)이 최첨단 절연소재인 ‘엔지니어링플라스틱’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올해 말까지 엔지니어링플라스틱 생산라인을 갖춘 신규 공장을 건립, 내년부터 상용화에 들어갈 계획이다.

변성기 및 에폭시절연물 전문업체인 동우전기공업은 산업자원부 발주 연구과제로 작년 10월부터 내년 11월까지 엔지니어링플라스틱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개발시험을 한창 실시하고 있다. 동우전기공업은 또한 인근 평택시 고덕면 울포리 일대 부지 3천여평에 건평 1천800평 규모의 공장을 새롭게 건립, 현재의 생산설비를 이전하고 있다. 특히 이 신규 공장은 엔지니어링플라스틱에 대한 첨단 생산라인을 새롭게 구비하고 있다. 신규공장 이전은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연수 사장은 “엔지니어링플라스틱은 자기, 폴리머, 에폭시 등 현재의 범용 절연자재에 비해 절연성능이 비슷하면서도 가볍고 생산원가가 저렴해 앞으로 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이며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상용화된 제품으로 성능은 이미 세계적으로 입증된 상태라고 말했다.